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11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22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1. 22(목)	담당부서	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유의택 사무관(044-203-5312)

성윤모장관 원전산업계 지원 및 소통 강화

❶ 원전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

❷ 원전 중소·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「원전기업지원센터」 개소 및 「원전 유관기관 MOU」 체결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.22.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, 두산중공업, 원전 협력업체, 기업은행 등과 함께, 원전산업계와 간담회, 「원전기업 지원센터」 개소식 및 「원전 유관기관 양해각서(MOU)」 체결식을 개최했다.

< 행사 개요 >

○ 일시/장소 : '18.11.22(木) 14:30~15:30 / 한국원산회의

○ 참석자 : (정부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
- (공공) 한수원, 한전KPS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국원산회의 대표
- (민간) 두산중공업, 협력업체(6개社) 대표
  * 무진기연, 우리기술, KHPT, 우진, 세안기술, 수산인더스트리
- (금융) 기업은행 담당 임원

□ **(원전산업계와 간담회)**는 원전산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지난 6월 수립·발표한 「에너지전환(원전) 보완대책(6.21.)」 이행 등 중소·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.

○ 성윤모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"정부는 원전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수출 지원, 원전 안전투자 확대, 에너지전환 펀드 조성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."라고 말하면서,

- “오늘 개소한 원전기업지원센터가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원전 중소·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○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이 제기한 인력·자금부족·기술개발·판로개척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은, 정부와 원전기업지원센터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.

○ 원전 공기업들은 산업·인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‘협력업체 지원방안’과 ‘핵심인력 유지방안’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.

- 공기업은 「에너지전환(원전) 보완대책(6.21)」에 포함된 세부 이행방안과 함께, 기존의 각종 지원 대책을 확대·보완했다.

- 또한, 「원전기업지원센터」와 협력하여 중소·협력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.

< 기관별 발표 내용 요약 >

구 분	협력업체 지원방안	핵심인력 유지방안
한수원	• 에너지전환 편드 조성 추진 • 보조기기 및 예비품 공급망 관리 대책(SRM)* 추진 *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• 동반성장사업(경영/인력, 자금, 품질/기술, 판로지원) 지속 추진	• 원전운영고급인력에 별도 직무급 지급 • 면허보유자에 특별등급대우 적용 • 정비인력을 능력에 따라 구분·관리하고 특별 수당 지급 • 분야별 핵심 전문가 선발 및 육성 추진
한전기술	•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• 신규사업(가동원전 안전강화 설계 개발 등) 투자 확대 • 상생 임금나눔 프로그램 추진	•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경력개발 비전 제시 •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핵심인력 유지
한전KPS	• 협력업체 기술역량향상(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등) 지원 • 금융지원 프로그램(저리대출 등) 운영 •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 인증 취득 지원	• 해외수출원전에 대한 정비 인력 양성 • 기술교류, 선진기술 습득 등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 시행 • 자격증, 석·박사 학위 취득 지원
한전연료	• 동반성장 지원 기동반 운영 • 수출 제품 인수검사 지연 시 이자보상 •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한전연료 품질 보증 지원	• 석·박사 학위 취득 지원 • 핵심기술 보유 퇴직자 대상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 기회 제공 • 연구개발 인센티브 강화

□ **(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과 원전 유관기관 양해각서(MOU))** 원전산업계 간담회와 함께, 「원전기업지원센터」 개소식과 「원전 유관기관 양해각서(MOU)」 체결식이 개최했다.

○ 「원전기업지원센터」는 「에너지전환(원전) 보완대책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, 정부와 함께 원전산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·인력·금융·수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'매개체' 역할을 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 및 인력분야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연례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하기로 했다.

○ 「원전 유관기관 양해각서(MOU)」는 원전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, 원전 공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중소·협력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.

< 원전 유관기관 MOU 주요 내용 >

○ **(체결기관)** 한수원, 한전연료, 한전기술, 한전 KPS, 한국원산회의

○ **(MOU 목적)** 원전 유관기관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공동 지원함으로써 원자력산업 생태계 유지·발전에 기여

○ **(협력분야)** ①경쟁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R&D 지원 사업, ②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한 인증 취득 지원 사업, ③단기적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, ④신규 수요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,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원전산업계와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의택 사무관(☎ 044-203-53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